

초등학생 성교육 이야기

어른들이 나빠요!

올바른 성문화는 올바른 성교육이 낳는다.

좋은 성교육이란 교육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성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여 진정 필요한 성교육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임미영 파주 신산초등학교 양호교사. CD를 심의위원. '알쏭달쏭 성이야기' 홈페이지 운영

3학년 성교육 시간의 일이다. 여자와 남자의 몸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호기심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호기심을 함부로 장난스럽게 표출하여서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 각자 생각을 해보고 자신이 친구들에게 잘못된 장난을 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면 발표해보자.”

키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아이들은 기회를 반란 아이처럼 일어나서 장난을 친 아이를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다.

한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잘못된 호기심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자아이들에게도 그 대처방법을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대뜸 “선생님 어른들이 나빠요.” 한다. 녀석의 얼굴이 진지하다.

“어른들이 나쁘다구?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보렴.”

“인터넷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다 어른들이 만든 거잖아요.”

순간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저런 예화를 말하기 시작한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일, 인터넷에서 봤던 일, 옷 벗고 보여주면 돈을 주는 얘기, 베일로 날아오는 음란 동영상 CD구내까지….

앞에 서있는 나를 너무도 부색하게 하는 아이들의 표현과 그들의 정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3학년인데….’ 하는 나의 생각에 돌을 던지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접하는 아이들

나는 6학년 아이들과 성교육을 할 때도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만을 했었다.

아이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듯 했고, 내가 생각하는 천진스러운 초등학생이리라 믿었다.

질문도 못하고 키득거리고, 속스러워 하는, 가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전문들처럼, 성기 주변에 생기는 음모를 놀라워하고 생리의 시작에 놀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다.

그 정도가 우리 어린이들의 성 지식의 수준이며 성분화이라라 단정지어 교육에 임했던 내 모습이 순간 부끄러웠다. 나는 너무도 볼랐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교사로서의 기대가 현실인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세를 가다듬고 결론을 내려줘야 했다. 어른들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 말해 주고 그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면서 어른으로서 몹시 부끄러웠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잘못된 점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음란 비디오,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들... 이렇듯 폭발적인 잘못된 성문화가 우리 어린이들의 주변에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성 지식과 아름다운 성을 위한 성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린이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가분수의 모습을 가지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성 지식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지

도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너무도 막중함을 실감한 시간이었다.

>>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공간 필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학계, 언론계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음에, 적극적, 실천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현신을 바로 알고, 그들의 당근증을 바르게 해결해주며 하고싶은 그들만의 얘기를 들이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시대의 어른이 깨어야 하고, 가르치는 우리들 지도교사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저런 예화를 말하기 시작한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일, 인터넷에서 봤던 일, 옷 벗고 보여주면 돈을 주는 얘기, 메일로 날아오는 음란 동영상 CD구매까지...

